지역사회 기반 교육협력 방안은?

전북지역교육연구소, 교육정책 세미나

지자체 교육여건 프로젝트 추진 · 교육복지 통합 등 제시

전북교육협력 현주소 진단 · 타 지역 모범사례도 공유

전북지역교육연구소(대표 이미영)는 25일 오후 3시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제10차 교육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정책 세미나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교육협력방안과 발전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전북교육협력의 현주소를 각 부문에서 진단하고, 타 지역 모범사례도 공유했다. 나아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지자체-교육청-대학-학교-마을-민간단체의 전북형 교육협력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먼저 주제 발제를 맡은 양병찬(공주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역소멸에 대항하는 지역교육생태계의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자체와 교육행정의 협력 전략인 학교와 대학, 지역이 변혁적, 협력적 교육공동체로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재생회복의 관점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여건 프로젝트 추진, △지역 재생을 위한 지역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주민들의 교육 강화, △지역공동체 사업들의 연계화로 혁신교육과 평생학습의 연계, △마을공동체 사업의 제휴, △지역 교육복지 사업 통합 등을 제시했다.

또한 양 교수는 지역교육생태계를 모범적으로 구축한 '교육자치도시로서의 협력 거버넌스'의 경기도 시흥시, '교육민회를 통한 주민의 교육협력 거버넌스'의 전남 순천시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다음으로 지역공동체교육의 방향과 과제로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교육청과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 구축 △지역과 학교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사업 통합운영 △지역 격차 극복을 위한 농촌교육 지원사업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정영 회장(전북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은 '전북마을교육공동체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학교, 학부모, 지역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학교와 마을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희 도의원은 '전라북도 교육 거버넌스 발전과제'에서 "지역성을 강조하는 흐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라며, 기존의 지역사회 교육 거버넌스의 문제점인 관주도 종속적 교육 거버넌스에서 새로운 지역사회 거버넌스 추진 방향은 민·관·학 협업 자치형 교육 거버넌스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채 기획처장(전북대)은 농생명, 연기금, 공간, 전기안전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전북 23개 기관과 제주 2개 기관 구성의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에서 지역특화산업인력과 융합인재를 육성한다고 소개했다. 또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한 교육청-대학의 원스톱 소통창구 마련 등 대학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황영모 연구위원(전북연구원)은 '지역소멸위기, 농촌학교 살리기 대응 전략과제'에서 "농촌학교는 지역사회 구심점으로 기능, 관계망 안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며, 농촌학교를 농촌 재생 관점에서 다각도의 정책 수단과 경제 투입을 통해 농촌학교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경남 서하초 작은학교살리기 사례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지역 활성화 및 작은 학교 살리기 협의회' 개최, 전입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거와 일자리 제공, 우수한 교육과정과 교육 혜택 제공 등으로 인구를 유입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생물안전관리 기여 공로 '인정'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고위험 병원체 등 연구 수행

전북대, 질병청장상 수상… 국가 재난질병 방제 기여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생물안전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위해로부터 국가 및 국민 안전 확보에 공헌해 온 기관의 공적을 알리고,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인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운영을 통해 전북대는 메르스와 코로나19,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고위험 병원체 및 제3위험군 병원체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 ABL3)을 대내외 연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해 공동 연구 및 민간사업 활성화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국가 재난질병 방제에 기여해 오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내년 5급 승진대상자 선정

도교육청, 총 19명 내년 1월 1일자로 임용 발령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5급 승진대상자 19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행정 15명, 시설 1명, 공업 1명, 사서 1명, 전산 1명 등이다.

이번에 선발된 5급 승진대상자들은 역량평가를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으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역량평가를 위해 지난 9월부터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 21~22일까지 기획보고서 평가, 집단토론 및 개별면접을 진행했다.

전북교육청에서 발표한 5급 승진대상자 명단으로 △교육행정직 강미순(정읍고), 구명자(전주상업정보고), 김연순(동계고), 김윤용(전주중앙중), 박병호(진안교육지원청), 박은숙(이리여고), 유보형(김제교육지원청), 이성준(산서고), 이시영(백암초), 이유경(부안제일고), 임채안(군산교육문화회관), 정진원(순창교육지원청), 조성연(서림고), 최상희(무주교육지원청), 최은선(군산동고) △시설직은 조만옥(부안교육지원청), 공업직은 소정영(익산교육지원청) △사서직 이미경(정읍학생복지회관) △전산직 김준호(임실교육지원청) 등이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고자 했다"면서 "현재 우리 교육청은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승진대상자는 오는 11월 7일부터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4주 간 기본교육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승진 임용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LINC 3.0 사업단 발효엑스포 무역상담회 참가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단장 주송)은 지난 24일 World-OKTA(세계한인무역협회) 유럽권 8개 지회 임원 29명을 초청,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무역상담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 무역상담회 참가는 LINC 3.0 사업단이 전통 문화산업의 글로벌 산업화를 선도하기 위해 'HeriStar(헤리스타)' 상품 브랜드를 새롭게 창안·등록해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한 세계한인무역협회 임원진을 초청,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 및 무역 상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전주대 LINC 3.0 사업단이 무역상담회에 초청한 World-OKTA(세계한인무역협회) 8개 지회는 유럽의 런던·파리·밀라노·빈·프랑크푸르트 지회, 동유럽의 바르샤바지회, 서아시아·동유럽 문화권에 속하는 이스탄불·바쉬켁지회다.

주송 단장은 "이번 HeriStar(헤리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한인무역협회와 더욱 긴밀히 글로벌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구축하게 됐다"며 "오는 27일에는 여수에서 (사)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장영식 협회장)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5일 전북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도내 교육전문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교육전문직원 교육 포럼'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미래교육, 교실혁명으로 실현… 핵심은 수업혁신'

도교육청, 도내 교육직원 대상 하반기 교육포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5일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도내 교육전문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교육전문직원 교육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께 꿈꾸는 미래 교육 공간, 에듀테크 활용 창의·융합 수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미래 교육 공간에 대한 이해와 미래학습 변화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적절한 학교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경남교육청 창의인재과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담당인 정인수 장학관과, 서울중현초 수석교사이자 원격수업 시대의 저자인 정문화 수석교사가 참여했다.

정인수 장학관은 경남 미래교육 테마파크 설립을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시행착오 과정, 조직 구성, 지자체 및 IT 기업과 협력, 내부 콘텐츠 구성 등 추진하면서 얻은 다양한 노하우를 들려줬다.

또 정문화 수석교사는 서울교육청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참여자들의 스마트폰을 활용해 AI 및 메타버스 기술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실습을 병행해 호응을 얻었다.

한편, 참석자들은 공감토론 시간에 미래교육의 방향성,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위한 학교 지원방안, 미래기술 도입과 고려해야 할 교육의 가치 등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전북교육이 추구해야 할 미래교육 방안을 고민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이 추구하는 미래교육은 기초·기본학력의 탄탄한 토대 위에서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미래교육은 교실혁명으로 실현되고, 교실혁명의 핵심은 수업혁신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25일 '2022 그린수소 이차전지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호남권 새 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성장 발판 마련

전북대, '그린수소 이차전지 활성화 컨퍼런스'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5일 '2022 그린수소 이차전지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호남권의 새로운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린수소·이차전지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북대 창업지원단과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 한국전자기술원이 공동 주관한 행사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김창희 교수가 그린수소 분야 산업 트렌드와 향후 동향을, 한국환경연구원 조지혜 실장이 이차전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특강을 펼쳤다.

또한 전북테크노파크 이영춘 단장, 유지연 팀장, 곽도환 책임연구원과 자동차융합기술원 사정환 본부장, ㈜에스첨단소재 허석봉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특화산업 거점 도약을 위한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재경 청장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그린수소 및 이차산업 분야 기업 대표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향후 지원방향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권대규 전북대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견을 나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전북대학교와 관련 지원기관에서는 더욱 실질적인 지원으로 지역 특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비전대, 취창업 종합대책 토론회

전주비전대학교 취창업지원처는 25일 '2022학년도 취·창업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상모 총장을 비롯해 박심훈 취창업지원처장, 최형주 취창업지원부처장, 채은주 취창업지원팀장, 학과별 취업지도위원과 학과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학생핵심역량증진과, 학생성공의 비전을 위한 취업률 점검차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학과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미취업자 중 취업 가능성 점검, △11월 미취업자 관련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비스포크 취업프로그램 참여 홍보, △취업 후 중도퇴사 방지를 위한 출장 추수 지도 진행 등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박심훈 취창업처장은 토론 기조발제에서 '취업명품대학 비전달성을 위한 학생맞춤형 취업지도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최형주 취창업부처장은 '취업자긍심 고취, 취업 홍보 전략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조경학과 Lafor 수목원정원관리원장상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Lafor 팀이 지난 24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2022 정원드림 프로젝트 시상식에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조경학과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Lafor 팀(유민·김태영·최현민)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2022 정원드림 프로젝트'에 초대돼 5000만원의 정원 조성비를 지원받아 지난 9월까지 '시들지 않는 숲(Never wood)'이라는 주제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정원 조성 및 관리 활동을 수행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상을 수상한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Lafor 팀.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정원 분야 진출을 꿈꾸는 청년 팀이 정원 작가 멘토링을 통해 정원을 직접 디자인하고 조성·관리하며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실습형 공모전이다.

유민 Lafor 팀장은 "여러 역량을 키우게끔 도와준 학과 교수님들과, 이번 프로젝트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서광원 작가님께도 감사드린다"며 "프로젝트 기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묵묵히 프로젝트에 임해준 우리 팀원들 너무 고생 많았으며, 앞으로 있을 공모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